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6.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018. 7. 27. 이현래 목사님

[히브리서 2장 14절~18절, 3장 1절]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2:14~18, 3:1).”

오늘은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를 보겠다. 그 전까지 천사들과 인자를 비교하는 말씀이었다. 왜 천사들이 항상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항상 먼저 등장한다.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했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고 했다.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창조해놓은 세계를 누군가가 와서 방해했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나는 두 번째 해석으로 본다. 하나님이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방해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온다.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 지었는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동산에서 추방하게 만든다. 꼭 같은 원리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과 종교를 동원하여 예수를 죽이게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방해자가 있다.

히브리서에서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귀는 결국 이탈한 천사이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경륜에는 반대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시려고 오신 것이고,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짚욱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고 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이 합의했다, 혹은 증거하다는 뜻이다. 우리말로 믿는 도리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증거한다는 뜻이다.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는 우리의 사도이시고 제사장이라는 인식이 되어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이다. 선지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입장에서는 사도라는 뜻이다. 사도라는 말은 인간의 수준이나 범위가 아닌 다른 범위에서 보내진 사람이다. 하늘에서 보내진 사람이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늘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사도들의 계열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의논하고 협의하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필요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위로부터 필요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이것이 좋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토론하고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나올 수 없다. 술은 어차피 술이다. 알코올이 있어야 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아도 술이고, 저렇게 만들어놓아도 결국은 술이다.

술에 관한 세금인 주세를 매길 때, 알코올이 몇 %가 들어있는가를 보고 주세를 매긴다고 한다. 음료수라고 무조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에 따라 주세를 매긴다고 한다. 막걸리이나 소주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볼 때는 알코올이 몇 %가 들어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다. 사도들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미암아서 온 사람들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구약에서 두 가지 기둥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천자라고 할 때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천자라고 한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토론한다고 되겠는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옳으나 그르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 나온 것 같으면 토의를 하면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느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것만 있지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할 것이 안 된다. 이것은 맨날 연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것인가는 연구해도 되지만 이것이 옳으나 이 시대에 맞느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시대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시대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시대도 없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었다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시대니까 100세에 아들을 준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을 주려면 100세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때니까 처녀로 잉태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려면 처녀로 잉태해야 된다. 여러분도 다 새겨서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한 치도 틀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야곱이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조금도 틀리지 않다. 지금도 압복강에 서있는 야곱이 있다. 꼭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보게 된다. 그 시대 그 시대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성경을 알겠는가?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시대가 오면 다른 복음이 생기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미국말로 하느냐 한국말로 하느냐는 이 차이이지 복음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거나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우리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만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고 하면 옛날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이다. 지금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어디로 피해가겠는가? 그 말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소용이 없는 말이다.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단지 거기서 나는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만 남는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이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나, 옛날 말이나 지금 말이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

시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이다. 언제나 똑같은 것이다. 알코올은 옛날 알코올이나 지금 알코올이나 마찬가지이다. 포도주 알코올이나 막걸리 알코올이나 알코올은 마찬가지 알코올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살리겠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들은 모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는가?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의논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일이고 연구해보았자 소용도 없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무슨 의학을 동원하여 해명하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으면 예수 없이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이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어서 뜯는 것이 아니다. 장님들이 말할 때 보면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껌벅거리린다. 그렇게 한다고 눈이 떠지겠는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9:6,7).**”고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우리 눈이 뜨여지려면 그렇게 뜨여진다. 누가 와서 나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어야 내 눈이 떠진다. 그냥 안 떠진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다. 우리 생각이 아닌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우리 생각과 같으면 무엇 때문에 보겠는가? 산상복음을 놓고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금자탑이라는 사람도 있고 황금률이라는 사람도 있다. 도덕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 성경의 산상복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볼 필요가 별로 없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인간세상의 도덕이나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했으니까 구약 율법에 비하면 월등하다는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값으라고 한 구약의 한계가 그것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우월하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다른 생명의 문제이다. 5리를 가지고 한 것을 10이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5리를 가자고 하면 5리만 갖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킨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귀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존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연못에 물이 더러워졌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물을 퍼다가 기계적으로 약을 넣고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다시 연못에 넣는다는 것이 있다. 다른 하나는 좋은 물을 계속 공급해서 좋은 물이 가득 차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더러운 물을 약을 치고 정화작업을 하여 맑은 물을

만들어서 다시 넣는 것이다.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유오수분리장치를 해놓았다. 집에서 하수구에 물을 버리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이 따로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간다. 화장실 변기에서 나온 것도 거기로 가서 처리하여 신천으로 다시 올려 보내면 위에서 다시 내려간다.

일본을 가니까 가정집은 모르겠는데 빌딩 화장실에 가니까 세면기 앞에 재활수라고 써놓았다. 그냥 물이 아니고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

그런데 생수가 있어서 계속 흘러내린다면 처음에는 느릿느릿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재활수가 아니라 생수와 같은 것이다.**

양화가 악화가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돈이 나쁜 돈을 몰아낸다는 말이라고 한다. 좋은 돈이 없으면 나쁜 돈만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좋은 돈이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끼리 지지고 북다가 결국은 다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자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봐야 한계가 있지 무진장 나오지를 않는다. 결국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대로 말라죽게 된다.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매마를 수밖에 없고 복음이 없으면 길이 없다. 복음이 없으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100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자식을 낳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와서 결국 이삭을 낳은 것이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으면 야곱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스스로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한 번 죽었다가 나와도 잘 안 된다. 죽었다가 나오면 개과천선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살던 지방에 조그마한 섬에 주민들은 전부 어민들인데 도미 잡이를 한다. 도미가 많다. 거기에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춘궁기 때 동네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이자를 받는데, 여름에 고기를 잡으면 이자를 쳐서 받는다.

그 부자는 고기를 수출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빈익빈부익부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동네 섬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이 한 집만 부자이다. 6.25 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잡아다가 밭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돌이 빠졌다. 물에서 헤엄쳐 나와서

살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춘궁기 때 양식을 무이자로 분배했다. 조건은 여름에 고기를 잡을 때 기왕이면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사람이 흔히 있겠는가?

사람이 저절로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밖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없이 저절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음이 없으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 이 상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예수는 우리에게 올 때,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왔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왔다. 다 버리고 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왔다.

사도들이 귀한 것은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이것을 세상에 전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산 사람으로 전했다는 것은 세상에는 전혀 없는 일이다.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이다. 이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세상에 없는 말이다.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 정말 그런 사람을 보았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때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말았으면 신화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행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화라고 볼 수가 없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본 일이 없지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고 말했다.

지금도 죽고 다시 산 사람이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의 사회이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죽고 다시 났다는 말이다.

만일 오늘 교회가 죽고 다시 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세상과 똑같다. 개들이 살아야 개판이 되지 소들이 사는데 개판이 되겠는가? 개만 살아야 개판이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교회이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전혀 상상 불허하는 상상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상상이 불가능한 데서 나온 찬양이다. 그래야 찬양이지 시험에 합격했다고 찬양하면 교회의 찬양이 아니다. 그런 찬양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찬양이다.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면 된다.

TV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까 열기가 대단하다. 여름밤에도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뛰는데 더위가 어디 있는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교회보다 더 즐겁다.

그런데 교회의 즐거움과 다른 것은 출처가 다르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충만함은 출처가 다른 기쁨이고 충만함이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그것이 교회이다.

물론 지금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섞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교회이다.

바다에 가보면 그 넓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한류와 난류가 따로 돌아간다. 수영을 해보면 좀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넓은 바다인데도 물이 섞이지 않고 한류와 난류가 따로 간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난류성 물고기는 그 난류를 따라 가고, 한류성 물고기는 한류를 따라 다닌다. 물이 똑같지 않다.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는 한류도 있고 난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껍데기만 보고 교회 같다거나 아니라거나 할 수가 없다. 안에 흐르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 흐르느냐는 것이다.

복음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간해야 된다. **하늘에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땅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물인지 재활수인지 구별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물, 항상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야 된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되어있다.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계통은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계통이고, 제사장은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땅에서 올라가는 길은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된다. 그 사람 자신도 번제단에서

나온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갈 수가 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이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구약에 이렇게 예표가 되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보면 그것이 영원히 진리이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선하다는 것도 세상 기준이고, 의롭다는 것도 세상 기준이다. 우리가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것은 살기가 편하다. 그래서 선을 택하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역시 살기가 서로 편하니까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는 의는 다른 의다. 하나님이 보는 선은 다른 선이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제단을 거치지 않으면 지성소를 갈 수가 없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제단의 피를 자기가 뿌리지 않고서는 성소에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없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 때문에 문제가 많은가? 제단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에 열심인 사람도 많은데 왜 시끄러운가? 피가 없어서다. 모두 자기 선으로 자기 의로 일하기 때문이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부딪힐 일이 없다. 불평불만이 없다. 그러나 자기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부딪치게 되어있다. 어디에서 부딪치든지 꼭 부딪치게 되어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딪치지 않는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것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뒤로 가면 걸리는 데가 생기게 된다. 신기하다. 귀신 같이 알게 된다.

여러분도 교회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다. 참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다보면 딱 부딪치는 데가 생긴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이는 그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없다. 지성소는 그만두고 성소에 가서도 일할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니까 맨날 싸워도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내가 4년 동안 전쟁 중에 휘말려 보니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

나도 거기서 시달려서 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나오면서도 내 속에 저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내가 수양을 해서 없어지는가? 아무리 수양을 해서 없어져도 다시 어떤 동기가 생기면 튀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종이축에 말려서 가버리고 없다. 다시 찾을래야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졌다. 한 방에 날아갔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

미국에 가면 영어를 못하니까 병신이다. 미국 사람을 만나면 병어리다. 그런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없다. 병신 된 것이 다 끝난다. 외국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싸지만 대한항공을 많이 탄다. 왜냐하면 그 병어리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물을 좀 얻어먹으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나는 찬물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달라고 말하면 'warm' 하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 Hot 하거나 Cool 이라고 한다. 아무리 warm이라고 해도 안 된다. 미국에 가서 학생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가르쳐 주는데 들어도 모르겠더라. 나는 warm 발음이 아무리 들어도 구별이 안 된다. 이 학생이 하도 답답하니까 벌레기어 가는 모양처럼 종이를 접었다가 놓으면 퍼지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나의 warm 발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따뜻한 물을 주겠는가? 비행기를 잘못 타면 병신이 된다. 한국 땅에 내리면 언제 그랬느냐 싶다. 나는 한국말을 잘한다. 여러분도 한국말을 잘한다. 멀쩡한 사람이 미국에 가면 병신이 된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너무 다르다. 복음은 전혀 다른 세계의 말이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 당연하다. 다른 세계의 말인데 어떻게 알아 들겠는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한 번 귀가 열리면 그 말 외는 다른 말을 듣지 못한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다른 말을 듣지 못한다.

제사장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에 없이 그 자리에 가겠는가? 가지도 못하지만 내가 남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렸다면 어떻게 속죄를 하겠는가?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예수는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복음서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피가 있기 때문이다.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나니. 전부 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번제단의 피다. 번제단의 피가 없이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기꾼이 되고 만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가짜가 되고 만다.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때문에 지신 것이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그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속이나 지혜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은 기도하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기도하여 받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이 말은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말과 거리가 있다. 의롭게 해준다는 말은 어떤 물건을 거래하듯이 한다는 말이다. 더 구체적인 말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이다.

그분과 내가 하나이지 않고서는 그분의 구속은 효력이 없다. 옛날 구속과 같다. 구약시대에 양의 피로 인해서 백성 죄가 용서 받았다는 것과 똑같다. 만약 우리가 그와 하나가 아니라면 예수님 피나 양의 피나 매 한가지이다.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에 속았는지 모른다. 항상 속는다. 옛날에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어떤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송아지나 양의 피로 구속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말 좋기는 좋은데, 그와 내가 하나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와 내가 하나일 때 그 구속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구속이라는 것을 따로 떼서 줄 수가 없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 복음이 희랍 세계에 들어가면서 희랍 세계의 특색이 바탕이 철학이다. 철학은 쉽게 말하면 합리주의의 일종이니까 객관주의이다. 그것이 바탕으로 깔려있는 세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시켜야 되고 나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는 객관화해야 되니까 교리화 되었다.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나 희랍인들은 무엇이든지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 희랍인들은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오든지 간에 일단 그것을 객관화 해야만 되고, 그 객관화 된 것을 즐겼다. 이것이 교리주의가 된 것이다.

한국을 보자. 조선 사람의 사상의 밑바탕에는 샤머니즘이 깔려있다. 그래서 무슨 종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이 깔려있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같이 간다. 불교도 원래 중국에서 들어올 때 샤머니즘이 아니었다. 선불교라는 것은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지 비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와서 불교는 비는 것을 빼버리면(샤머니즘을 빼버리면) 불교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런 계통을 아는 사람들은 불공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내가 있었던 절에서도 정월이면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절인데도 머리에 뭍 이고 온다. 밥을 해놓고 그 사람은 계속 절을 하고 스님은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염불을 해준다.

내가 하루는 물었다. 스님에게 그 사람은 무슨 일로 불공을 드리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스님이 염불하시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절을 한다고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 1년 농사라는 것이다. 아주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이분도 참선하는 스님이시다. 매일 참선하신다. 부처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람이다.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가? 아니다. 한국 불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막을 길이 없다.

만약 이것을 막아버리면 한국 불교가 다 없어져 버린다. 절에 갈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다. 법회도 하고 어떤 불법을 선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지기 어렵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적 기독교가 되었다.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전부 밑바탕에는 샤머니즘이 깔려 있다. 70년대 오순절 운동이 벌어지면서 샤머니즘이 완전히 천하통일을 해버렸다. 은사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이 되고 말았다. 지금 교파 상관없이 그 내용 속에 다 깔려 있다.

복음이 희랍 세계에 들어가면서 나는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국교 속에 예수가 낄 자리가 어디 있는가? 교황 위에 있겠는가? 교황 아래에 있겠는가? 예수가 있을 자리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는 있을 자리가 없다.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는데 어디에 가서 자리를 끼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한 것이 개신교이다.

근본 틀이 아주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알아서는 수박 겉핥기가 된다. 히랍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다 동화되어 있다. 철학과 신학이 서로 엉켜서 동화되어 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증거하고 합의한 사도시고 대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미국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를 뭘 더 아느냐고 한다. 다 안다고 한다. 다 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알아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같이 난 사람도 알기 어려운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서 알겠는가? 우리는 평생 이분을 알아야 된다. 이분 안에 복음이 있다. 이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만민이 모두 구원을 받으려면 이 복음이 쉬워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쉬운 자리로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렵다는 사람이 있다.

어제도 어떤 자매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지식으로는 다 알겠는데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보라고 했다. 쳐다보라고 했다. 모세가 놋뿔을 만들어놓고 쳐다보라고 했지 뭘 하라고 했는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쳐다보라고 했지 뭘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다. 뭐가 안 되느냐고 물었다.

루터 말이 맞다. 사람은 날 때부터 율법적이라는 말이 맞다. 뭔가 자기가 되려고 한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되려고 한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길이 준비되었는데, 뭐가 또 되겠는가?

아담은 길이 없어서 가시밭길로 간다. 길을 다 만들어놓았는데 우리가 또 무슨 길을 만드는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길을 만들려고 불렀다. 새로운 길을 가느라고 불렀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가는 길이 바벨로 간다. 거기서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내었다. 길을 만들려고 불러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히랍인들이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고, 이삭을 통해서 왔고, 야곱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올 때마다 길이 되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인용하셨다.

길이 이미 만들어졌다. 예수님까지 올 때 길이 이미 만들어졌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길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길로 차를 몰고 가면 된다. 그런데 ‘뭘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딱하다. 길이 있으면 가면 된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요14:6).**”라고 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길>이라고 써 놓았다.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이 길이 되어서 닦아놓았으니까 우리는 타면 되는 것이지 길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길이 없어서 가시밭길을 가던 사람이니까 신작로가 생겼으면 고속도로가 생겼으면 거기로 가면 된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만들 때 희생이 많았다고 한다. 장비도 지금처럼 좋지 못하고 기술도 없는 때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그것도 차관을 얻어서 했다. 그때 야당에서는 모두 반대했다. 김*중, 김*삼도 다 반대했다.

현장에서 공사감독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돌이 와서 길바닥에 드러누웠다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와서 사진 찍고 나니까 그냥 갔다는 것이다. 사진 찍으러 온 것이다. 이것을 차도 없는데 왜 만드느냐고 했다. 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느냐고 했다. 그런데 만들어놓으니까 차가 이렇게 많아져서 하루에도 수백만 대가 왔다 갔다 한다.

길을 만든 사람은 모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는데 그때 수상이 박대통령을 아들처럼 사랑하여 귀뜸 해준 말이 히틀러가 한 것이 모두 잘못했는데 고속도로를 만든 것만 잘했다고 했다. 거기서 힌트를 받아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어서 길을 닦았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길을 닦았다. 하늘로부터 오는 아들을 받으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 길을 닦아놓았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이다. 길을 닦아놓았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받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야곱이 닦아놓은 길로 가야 된다. 다른 길로 가서는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축복을 하겠는가? 130살 노인에, 절름발이에, 이재민인 사람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궁전에 가서 바로 앞에서 축복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야곱이 길을 닦아놓았다. 그 길 말고 왜 다른 길을 찾는가? 그 길로 가면 된다.

지금 서울과 부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다니는가?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기차를 타도 12시간을 가야 된다. 지금은 4시간이면 차로 간다. 처음에는 2차선으로 만들었다가 다음에 4차선으로 늘렸다. 구간구간 8차선으로 늘렸다.

독일의 아웃토반은 10차선도 넘는다고 한다. 속력이 있는 대로 달린다. 아웃토반에 가면 유럽차들은 속력 제한이 없다. 미국은 어디를 가나 110킬로를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있는데, 독일 아웃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 독일 차가 좋은 이유가 무제한 달리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로가 좋으면 빨리 갈 수 있다.

이미 깔아놓은 도로를 알아야 이 도로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길을 알려주려면 그 길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다.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길이 되셨다. “내가 곧 길이에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그 길을 가르쳐주겠는가? 예수를 아는 것이 길을 아는 것이다, 제사장은 사람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에게 가는 사람이다.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된다. 유별나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된다. 우리와 똑 같아야 된다. 왜? 나를 품고 가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맛 보셨다. 예를 들어 그가 포도주나 만들었으면 그 안에 포함되기가 어렵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면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가면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 누구나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이다.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뭘 하는 것이 아니다. 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다 끝난다.

‘그분과 하나 되면 뭘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또 있다. 그분과 하나 되면 그만이지 뭘 하기는 또 하는가? 하나 되면 그만이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갔으면 그만이지 뭘 또 어떻게 하는가? 시집가기 전에 처녀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뭘 하겠느냐고 하면 시집을 갈 수 있겠는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만이다. 그 다음 일은 자기대로 할 일이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되면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 다음은 하기에 달렸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합해진 그것이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와 연합된 것이 새 생명이다.

우리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2:24 참고)고 했던 거기서 이탈되어 나왔던 사람들이다.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다 된 것이다.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일이 생기고 하게 된다.

이번에 사랑방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 맞다.

아버지만 되면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있다.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들이다. 그 다음 일을 생각하니 아주 답답하다. 이렇게 쉬운 일을 놔두고 왜 그 다음 일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속아도 한 없이 속았다. 밥을 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뭘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가? 밥 주면 밥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우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안에 단백질이 몇 %나 들어있지, 이렇게 하니 먹어지겠는가? 안 된다. 배고픈 사람은 그것이 소용이 없다.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먹어야 된다.

펼벅이 쓴 <대지>라는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는데 이웃 집에서 연기가 난다. 사람들이 모두 뭘 해먹는가 하고 몰려들었다. 봤더니 흙을 끓여서 먹으려고 흙을 끓이고 있더라는 것이다. 중국의 가난을 그렇게 표현했다. 배고프면 흙이라도 끓여 먹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심령(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3).” 이 말을 왜 했겠는가?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면 된다. 사람이 가난한 것을 안다는 것이 참 복이다. 이것이 꼭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오버랩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억울하지 않고 감사하다. 잘못된 것도 감사하고 잘한 것도 감사가 되고 다 감사가 된다. 하여간 이상한 나라이다.

천국은 왜 가난한 자의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진한 간증이 나올 때가 있다. 그것은 정말로 가난해서이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서는 진한 간증이 나오

지 않는다. 참 신기한 일이다.

왜 하필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인지... 그렇지 않은 곳에 은혜가 넘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실제로 보면 그렇다.

막달라마리아 그 사람은 왜 십자가 밑에까지 갔는가? 제자들은 왜 도망을 쳤는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 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밑으로 간 것이다. 제자들은 고기 잡으로 갈 데가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

천국의 문은 너무 공평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고, 부유한 자는 가난하게 한다. 너무 공평하다. 복음을 전해보면 신기한 일이 너무 많다. 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 속에서 또 교회를 구별해야 된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모른다. 속된 말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렇게 된다. 외형만 보고 교회가 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정말 생명이 흐르는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흐르는 지가 중요하다.

내 생명 가운데 그래야 되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 자기만큼 외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자기만큼 된다. 또 자기만큼 되면 좋다. 자기 이상으로 버거우면 힘들다. 작든지 크든지 자기만큼만 되면 아주 편하고 좋다. 내 분량만큼 되면 편안하고 좋다. 분량을 초과하면 힘들다.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합의하는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사합니다.